

## 새해 아침에



김민환

고려대 미디어학부 명예교수

## 호남이 눈을 감으면 누가 민주주의를 지킬 것인가?

은 사람들이 뉴스 보기를 꺼린다. 아예 방송에서 뉴스프로를 없앴으면 좋겠다고 하는 이도 있다. 박근혜 후보를 찍지 않은 사람들은 국가전복 세력이니 반대한민국(反大韓民國) 세력이니 하고 저질 악담을 뱉은 자를 빙 당선자라 대변인으로 임명했다는 보도에 집하고는, 모발감과 함께 절망감을 느끼는 이가 많다. 힐링(healing)이 아니라 퀄링(killing)을 할 심산인가?

지난 대선은 민주당이 어느 당직자가 말했듯이 민주당으로서는 지어야 질 수 없는 호기였다. 대선이라는 것이 지난 5년의 치적을 평가하는 이벤트라면 이명박 정부 5년은 누가 뛰어도 난제점이 하였기 때문이다. 그러나 민주당은 졌다.

돌이켜보면 지난 해 두 차례 선거에서 민주당은 약수만 거듭했다. 새누리당이 잘 해서가 아니라 민주당이 잘 못해 패배를 자초했다. 민주당의 혜개모니를 장악한 특정 정파는 지난 총선에서 이른바 정체성을 내세

워 실력을 갖춘 상당수 후보를 낙천시키고 자기 정파를 대거 공천했다. 투사들이 몰려나와 애원 투쟁능력은 배양했는지 모르지만, 수권능력을 보이는 데는 실패했다. 그 결과는 대선으로 끝바로 이어졌다. 수권 능력에 대한 확신을 주지 못한 정당이 중간지대를 파고드는 데는 한계가 있게 마련이었다.

민주당은 대선 국면에서도 같은 잘못을 되풀이했다. 민주당에는 보수와 진보를 떠나 식자들이 공히 인정하는 경쟁력을 갖춘 후보가 있었다. 단일화 국면에서 상대적으로 경쟁력이 나은 무소속 후보도 있었다. 그러나 특정 정파가 이끄는 민주당은 계파나 당파이해에 집착해 자파 후보를 고집하다가, 아래도 저래도 차마 민주당을 버리지 못하는 유권자들에게 쓰라린 패배를 안겼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난 대선국면은 우리에게 결코 작지 않은 희망을 갖게 했다. 첫째, 우리는 새누리당과 민주당이 중간지대 유권자를 의식하고 선거전을 펼쳤다는 데

서 새로운 가능성을 보았다. 중간지대를 보고 선거전을 펼쳐 만든 것은 애당초 대통령 후보나 캠프 사령탑이 아니라 유권자들이었다. 많은 유권자들은 부질없는 이념대립이나 패권주의에 식상한 지 오래다. 유권자의 그런 변화를 감지한 여야 캠프가 중간지대를 위한 공약을 개발하고 중간층을 공략한 것이다. 중간지대가 두텁게 형성되었다는 것은 사회통합이라는 오랜 숙제가 풀릴 기미를 보였다는 것을 의미한다.

둘째, 선거전이 전에 비해 제법 격을 갖추었다는데 우리는 희망을 느낀다. 민주화 이후에도 선거전은 여전히 저질 네거티브공세가 판을 쳤다. 90년대만 하더라도 선거철만 되면 보수세력이 색깔론을 들고 나와 선거판을 북풍(北風)이 뒤흔들었다. 그 뒤로는 이른바 병풍(兵風)이 불더니, 5년 전에는 BBK 사건으로 날이 쌌다. 그러나 지난 대선에서는 네거티브운동이 힘을 쓰지 못했다. 폭로전이나 네거티브 공격이 줄

어든 것은 각 캠프의 의지 때문이었는가? 아니다. 네거티브 선거전을 펴면 곧바로 역풍이 불었다. 유권자 수준이 몰라보게 향상되어 각 캠프에서는 품격 있는 선거전을 지향하지 않을 수 없었다.

중간지대에 있는 유권자의 층이 두터워지고 그들을 대상으로 제법 격을 갖춘 선거전을 펴는 것이 불가피해졌다는 사실은 우리나라의 국적이 그만 높아졌다는 것을 의미한다. 갑자기 부를 쌓았지만 정치문화는 후진성을 면치 못한 좋은나라라는 국제 사회의 굽지 않은 시각을 후보나 정당이 아니라 유권자가 불식시킬 수 있게 한 데 대해 우리는 자부심을 느껴 된다. 우리 국민은 지금 제발로 선진국의 문턱을 넘고 있다.

수준 높은 유권자로서, 이제 우리는 새로운 각으로 우리의 정치현장을 감시해야 한다. 허탈감이나 좌절의식은 극복하고, 우리 정치권이 중간지대를 보고 대통합을 지향하도록, 품격 있는 국정 토론을 진행하도록,

눈을 부릅뜨고 지켜보아야 한다. 박근혜 정부가 중간지대를 보며 대화합을 이끌 경우, 수준 높은 정치를 해 갈 경우, 우리는 정파에 대한 정서를 넘어 아낌없이 박수를 보내야 한다. 그러나 박근혜 정부가 국민의 여망을 백인시하고 여전히 편중된 인사, 차별적인 개발정책으로 지역갈등과 지역격차를 심화하고 민주주의를 뇌물사건으로, 우리는 언제든지 촛불을 들고자 다져야 한다.

다만 정약용이 그의 탕론(湯論)에서 말했듯이, 치자(治者)가 옳은 정치를 하면 국민은 박수를 치며 환호해야 하지만, 치자가 제 노릇을 하지 않으면 국민은 그 치자를 가차 없이 권리에서 끌어내려야 한다. 호남인은 결코 현장을 두고 눈을 감지 않고, 그 뒷짐을 보고 눈을 돌리지 않는다. 호남이 눈을 감고 눈을 둘면 이 나라 민주주의를 누가 지키고 키우겠는가? 호남이 없으면 나라도 없다는 이순신 장군의 명언은 여전히 유효하다.

## 용꼬리가 아닌 닭 벗을 꿈꾸는 과학자



박행순

자신을 '사미어'라고 불러달라는 41세의 네팔인 과학자(Dr. Sameer Dixit)를 만났다. 그는 미국에서 학사, 호주에서 석사와 박사 학위를 받고 5년 전에 귀국하여 '분자 역학센터'(CMD, Center for Molecular Dynamics)를 세우고 대표가 되었다. 그는 의대 교수와 와 달리는 초청을 사양하고 연구에 전념하고 있다. CMD는 영리를 목적으로 하지 않는 NGO 단체로서 다양한 국가, 연구소, 대학들과 인적, 물적 네트워크를 구축하고 있다고 했다. 그는 한국에도 다녀왔다면서 내가 마치 한국과의 네트워크를 이어줄 창구나 되는 듯 나의 방문을 반겼다.

나는 네팔의 연구시설이 열악한 것을 알고 있는데 이 센터에 대한 소문을 듣고 어떤 시설과 기기들을 갖추고 있는지 궁금했었다. 사미어가 전 재산을 털어서 이 센터를 세웠다는 이야기도 들었다. 그의 안내를 받아 연구소를 둘러보니 공간은 작지만 필요한 기기들을 상당히 갖추고 있었다. 초창기 연구소답게 대표의 설명에서 깨기와 열정이 느껴졌다.

그는 센터가 세 분야의 연구를 수행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공중보건에 관한 질병연구, 암생동물의 유전학적 연구, 그리고 암용식물 등 천연물 관련 연구라고 소개했다. 공중보건 분야는 주로 세계보건기구와 유엔의 지원을 받으며 네팔의 콜레라, 에이즈, 결핵, 간염 등의 연구가 주를 이룬다. 사슬처럼 연결된 요즘의 국제화 시대에 악한 사슬에 해당하는 네팔에서 질병관리를 제대로 못하면 그 여파가 전 세계에 미치므로 네팔의 이런 연구는 중요한 의미를 갖는다고 사미어는 역설했다.

야생동물 연구 분야에서는 네팔 호랑이 유전자 프로젝트가 특히 주요 과제이다. 그는 네팔에서 발견되는 맹갈 호랑이들의 광범위한 DNA 데이터베이스를 구축하고 있다고 했다. 그가 준 뉴스레터에는 흰 표범, 사향노루, 늑대와 아시아 코끼리의 연구에 보존 유전학을 도입했다는 설명도 들어있다. 멀종 위기에 처한 동물들과 다양한 희귀 동물들의 유전학적 연구가 중요하다는 것은 오래전부터 잘 알려진 내용이다.

마지막 연구주제는 고도 차이가 큰 히말리아에 폭넓게 서식하고 있는 다양한 암용식물들이었다. 당연히 많은 나라에서 관심을 보이고 있다. 작년 4월에는 인도의 지원으로 3일간 '천연물 학술대회'가 카트만두에서 열렸다. 대회의 주제는 '보다 나은 건강과 아름다움, 번영을 위한 천연물들'이라는 표어 속에 잘 나타나 있다. 나는 사미어에게 다음 학술대회 때는 한국의 연구자들이 참석할 수 있도록 미리 알려달라고 부탁하였다.

다. 이는 한국 과학자들과의 네트워크를 구축할 수 있는 자연스러운 기회여서 그가 원하는 바이기도 하다.

네팔어가 공용어지만 네팔에는 종족 언어가 100개가 넘는다. 모든 학교에서는 영어가 사용되기 때문에 교육받은 사람들은 국제사회에서 비교적 경쟁력이 있다. 대학원 과정으로는 보통 호주와 미국을 선호하고 학위를 받은 후에는 가능하다면 그곳에 정착하는 경우가 대부분이어서 인재 유출이 많은 나라이다.

나는 사미어에게 어떻게 이런 연구센터를 세울 생각를 했느냐고 물었다. 그는 외국에서 일한다면 돈은 벌 수 있지만 피고용인에 불과하다고 말했다. 네팔에 돌아와서 연구자로 일하면 조국에서 일한다는 보람과 함께 존경받는 삶을 살 수 있기 때문이라고 대답했다. 나는 당신 같은 경우를 '용의 꼬리보다 닭의 벼슬이 되는 것이 낫다'라는 속담으로 표현한다고 했더니 자기를 정확하게 표현한 말이라면서 무척 좋아했다. 나는 그가 결코 평범한 닭의 벼슬으로 끝나지 않을 것이라는 생각을 했다.

〈파탄의대 객원 교수·전남대 명예교수〉



최은식

형사사건의 변호인으로서 가장 먼저 하는 일은 기록을 복사해 공소장·죄명·공소사실을 확인해보는 일이다. 대부분 공소사실을 읽으면서 유죄의 선입관을 가지게 되는 것 같고 특히 국선사건의 경우 더욱 그런 경우가 많았는데, 이런 매너리즘을 반성하게 한 사건이 필자에게 있었다.

울 봄 외부 출장 중에 사무실에서 걸려온 급한 전화를 받게 됐다. 강도죄로 아들이 구속돼 있는 아버님이 찾아와 변호인으로 선

임하겠다며 접행유예의 선처를 받도록 해달라는 취지였다.

급한 외부 일정 때문에 선임 관계를 사무장에게 일임했고 다음날 경찰서 유치장에 피의자 접견차 아들을 만났더니 사건은 단순 강도가 아닌 강도상해 사건이었다.

강도상해죄는 법정 최저형량이 7년으로, 접행유예가 불가능한 사안임에도 접행유예를 조건으로 선임한 셈이 된 것이다. 당사자의 아버지가 사안을 정확히 설명하지 못한 잘못도 있지만 필자는 난감한 입장이 돼버렸다.

아무튼 피의자로부터 사건 내용을 자세히 들어보기로 했다. 사건의 경위는 대략 이러했다. 친구와 날치기를 공모한 뒤 자신은 운전만 해주었는데, 실행에 옮긴 친구가 피해자에게 허상을 입기 위해 한 사안으로, 결국 강도상해죄로 혐의를 받게 되었다.

접행유예에 대해서는 그 자체로 사건 내용을 자세히 들어보기로 했다. 사건의 경위는 대략 이러했다. 친구와 날치기를 공모한 뒤 자신은 운전만 해주었는데, 실행에 옮긴 친구가 피해자에게 허상을 입기 위해 한 사안으로, 결국 강도상해죄로 혐의를 받게 되었다.

피고인의 아버지는 시골에서 농사지으면서 어렵게 사시는 분이고, 사건 당사자는 나아도 어렸으며, 이들은 날치기하려는 친구를 위해 자동차를 운전만 해주었을 뿐 크게 잘못한 것도 없는데 구속까지 됐다고 억울해 했다.

기록을 복사해 검토해보니 피고인은 물론 친구도 수사기관에서부터 순순히 범행 과정을 인정, 처음에는 무죄변론이 쉽지 않았다는 생각이 들었다. 그러나 다시 꼼꼼히 기록을 검토하면서 이 사인이 정신적인 강도가 아닌 '날치기'로부터 시작된 사건이라는 점을 단서로 변론 방향을 잡았다.

'날치기'의 형법상 죄명은 절도이고 그 과정에서 어느 정도의 물리적 행사는 예견돼 있기 때문에 피해자의 반항을 억압할 정도의 폭행 협박을 한 경우가 아닌 날치기로 물건을 탈취하는 과정에서 우연히 발생한 부상은 강도상해죄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대법원 판

례 사안을 집중 부각해 변론을 시작했다. 또 마치 사법시험 2차 단문 문제에 대한 답안과 같은 내용의 변론요지서도 제출했다.

원심은 강도상해죄에 대해서는 무죄를 선고하고 다만 특수절도죄에 대해서는 접행유예 선고였으며, 이에 검찰이 항소했으나 항소심에서도 같은 취지로 검사의 항소가 기각됐다. 원심이 확정된 것이다.

필자에겐 혼란을 준 사건이었는데, 이 과정에서 다시 한 번 느낀 부분은 첫째, 공소장을 보고 사건에 대해 선입관을 가지 말자는 것이었고, 둘째는 법조문과 이에 따른 구성요건을 반드시 다시 한 번 확인하자는 것이었다.

한마디로 '기본에 충실히 하자'는 생각을 깊이 하게 된 계기가 된 것이다. 그러나 정작 변호인으로 선임한 아버지나 피의자는 이법리 다툼을 까맣게 모르고 있다는 것이다. 나아가 아린 피의자가 이번 재판을 통해 당연히 선처 받은 것으로 여기고 변호인이 얼마나 치열하게 다툼을 벌였는지 잘 이해하지 못한 채 재판을 저지르는 일이 없기를 바란다.

〈변호사〉

기고



최승식

현대사회는 물질민족의 시대로 모든 길은 물질로써 해결된다고 한다. 이는 많은 부정적인 면들을 양상하고 있음을 두말할 나위가 없다. 무슨 일이든 결과를 중시함으로 인해 인간 본연의 가치가 하락한다. 이런 문제는 사회적 병폐현상으로 이어져 사회질서가 교란되는 가운데 청소년들에게 전염한 사고와 성숙한 윤리의식을 학양시키지 못하고 있어 건전한 삶을 지향하는 도덕교육의 필요성과 아울러 기성사회의 도덕성 회복이라는 난제 역시 피할 수 없는 게 오늘날의 현실이다.

오로지 1등을 위한 끊임없는 추구, 갈망

## 현대사회의 스포츠 정신

들은 결국 학교생활뿐만 아니라 사회생활로 이어지기 때문이다. 이는 비단 교육계를 넘어 가장 순수하고 아름다워야 하는 청소년으로서 조건으로서 조건으로 그려온 일들이 일어나고 있으니 말이다.

인간성의 회복이란 인간 본래의 선한 상태로 돌아가 이를 회복함을 의미한다. 어느 사회이나 그 사회 나름의 도덕적 규범이 있으며, 국가에서는 이를 법으로 규정하여 사회정의를 구현하고 미풍양속을 이루어 가는 데 있다. 그러나 법만 가지고 사회의 도덕성을 회복하는 데는 분명히 한계가 있어 보이며 다른 대안적 요소들인 교육, 종교, 스포츠, 예술 등이 그 부족한 역할을 하고 있지 만 현 사회실태를 보면 그렇지는 않는 것 같다. 이에 해결을 위한 대안은 체육, 스포츠, 무도(武道) 관련 전공자들의 자기 노력이 부족하여 사회적 공감대를 형성하지 못한 것이 부정적 이

태권도, 검도, 합기도, 풍파 등 스포츠화된 것들을 연상하기 쉽다. 주로 기술을 중시하는 무술(武術)을 연상하기 쉽기 때문에 무도가 가지고 있는 그 나름의 정신보다는 외면적인 공격적 성향으로 인식하기 쉽다. 하지만 무도의 본래 목적은 우리들이 알고 있는 무술에서 출발한다. 즉 신체수련(단련)을 통하여 극기를 통한 인격수양의 높은 도덕적 경지에 이르는 것을 궁극적 목표로 하고 있다. 이렇게 좋은 장점을 있음에도 불구하고 우리들은 주로 체육, 스포츠, 무도에 관련된 것들을 연상할 때는 그리 긍정적이기보다는 부정적으로 많이 인식한다.

이러한 문제는 우리들만이 가지고 있는 독특한 하나님의 문화현상으로 생각되며 이는 그동안 체육, 스포츠, 무도(武道) 관련 전공자들의 자기 노력이 부족하여 사회적

미지를 양산하는 가장 큰 이유일 것이다. 우리와 달리 중국, 일본에서는 무도를 국가 체육의 핵심소재 또는 전통 정신문화의 전승소재로 확립되어 있다. 동양의 국가뿐만 아니라 실제로 서구사회에서 동양의 무도가 새로운 체육으로서 높은 인기 속에 유행하고 있는 이번에는 서구분화가 성숙시킨 스포츠가 노출하고 있는 문화, 역사적 요인에 연유한 교육적 가치질환의 한계, 현대 상업주의 스포츠의 타락상 등의 부정적 측면으로 인해 무도교육이 가지고 있는 교육적 간접성, 종교적인 만큼 철저한 도덕성과 진지한 철학적 분위 등에 의해 그들이 주목하고 있다. 무도의 교육적 수련은 본질적으로 페어플레이 정신을 포함하고 있다.

무도는 본래 자기통제, 예절, 정의, 정직 등과 같은 정정당당한 수련을 강조하고 있다. 그 점에서 오늘 날 사회전반에 걸쳐 야기되고 있는 비윤리적, 비도덕적 사회문제를 치유할 수 있는 중요한 교육적 수단의 하나로서 평가되어야 할 것으로 생각된다.

〈남부대학교 태권도경호학과 교수〉

독자투고를 기다립니다. 주변의 작은 이야기, 생활의 경험 등 어떤 내용의 원고나 사진, 만화, 만평도 환영합니다. 채택된 원고를 지급합니다. 원고를 보내실 때는 이름, 주소, 전화번호를 함께 적어 주십시오.

501-711 광주광역시 동구 금남로 2가 20-2 광주일보 오피니언 담당자  
전화 062-2200-628/팩스 062-222-4918/e메일 opinion@kwangju.co.kr

## 無等鼓

만 아니라 직장 야유회도 무등산을 찾는 것이 일상이다시피 했다. 1980년 5월 이후에는 새해 첫날 무등산 중며리재나 서석대 등지에서 해맞이를 하며 광주의 이들을 달래고 더 나은 미래를 그리곤 했다.

무등산이 지난달 27일 21번째 국립공원으로 승격됐다. 1972년 도립공원으로 지정된 지 40년 만이다. 이로써 전남지역에는 제1호인 지리산을 비롯해 한려해상·내장산·다도해 해상·월출산 등 6개소가 국립공원으로 지정된 것이다.

앞으로 군부대 이전과 방송통신시설의 통합문제가 관건이다. 1990년 대 중반 호남정맥을 종주할 당시 안양산에서 백마능선을 거쳐 입석

고립준에 합류하기 어려운 '산이 라 하기도 하고, '무릎 아래 지란(芝蘭)을 기르듯' 하는 산이라고 표현한다.

하지만 무등산은 뭐니 뭐니 해도 '광주의 공원', '광주의 녹색 허파'라고 부를 것이 제격이다. 인구 150만명이 거주하는 대도시에 이런 큰 산이 인접해 있는